

역대급 장마 인명피해 '0'...광주시 재난행정 빛났다

재난관리·기관 협조·시민 협력 3박자...기록적 폭우 속 시민안전 지켜 한발 앞선 비상 3단계 발령 돋보여...장마 끝난후에도 예찰 활동 강화

광주시에 전국 곳곳에 역대급 피해를 입힌 장마기간동안 한발 앞선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달여에 걸쳐 1년 강수량에 육박하는 '케릴라성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광주·전남지역 장마는 지난 25일 종료됐다. 광주에는 이번 한달여간의 장마기간동안 평균 1098mm의 많은 비(북구 1181.5mm, 광산구 1066.5mm, 서구 1072.5mm, 동구 975mm, 남구 840mm)가 내렸다. 이는 광주지역 평년 평균 강수량인 1380mm에 근접한 양으로, 1년 치 비가 한 달 만에 쏟아진 것이다.

광주지역은 이 같은 기록적인 장마 폭우에도, 광주시와 재난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토사 유출, 도로침수, 노후 건물 붕괴 등 일부 재산피해를 제외하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

하지 않았다.

광주시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번 장마기간동안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낸 것은 그동안 극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과 축적한 자료에 기반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가동,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대 최장 가뭄(2022년 11월-2023년 6월)이라는 심각한 재난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했던 경험이 이번 집중호우 대응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에 실제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5월부터 가뭄 대응과 함께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성 장마 피해 등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준비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그동안 예상치 못한 가뭄 피해를 겪어온 광주시는 가뭄과 폭우 등 기상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보 이상 발효 시엔 지역재난안전대책본

부를 곧바로 꾸리고, 단계별 대응에 나서는 등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광주시에 이 같은 재난 대응 행정은 전국에 역대급 인명피해를 끼친 이번 장마 폭우 기간 극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한 사례로 광주시는 집중호우가 예상됐던 지난 24일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협업부서·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상상황에 따른 대처 계획을 사전 점검했다.

그동안 가뭄과 장마 대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온 문 부시장은 이날 긴급대책 점검 회의를 통해 ▲각 기관 및 부서별 협업 논의 ▲선제적 주민 대피 및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옹벽, 공원, 지하차도 점검 및 예찰 ▲취약계층 우선 대피 등을 긴급 지시했다. 특히 당시 황룡강 장목교 수위가 홍수경보 수위인 6.5m의 턱밀인 6.2m를 넘어섬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하는 등 피해 예방에 집중했다.

이처럼 신속한 재난 예방 행정 덕분에 신덕·장목마을 주민 158명이 인근 광산구청과 평동중학

교 강당으로 무사히 사전 대피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비상소집된 직원들이 위험지역 곳곳에 배치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명피해 요인을 모두 사전 차단했다.

다행히 당시 예보됐던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번 장마를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긴 시민들 사이에선 행정·유관기관의 선제적 대응력이 돋보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광주시에 장마 종료 이후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와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도 집중하고 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잇따른 폭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상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한 효율적 통제와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앞으로도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광주시에서 발송되는 재난문자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등 재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하세요 광주시 시행 10년 맞아 캠페인

광주시에 시행 10년을 맞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2014년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2021년 도로명주소법 개정 이후 지상도로 중심의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에서 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도로를 포함한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하는 등 촘촘하고 세밀한 주소체계로 진화했다.

광주시에 이처럼 달라진 주소정보의 장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누리집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한편 광주월드컵경기장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와 지하철 내 홍보동영상 송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과 6월에는 빗고을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직접쓰기 등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지난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은 아동복지시설 45곳을 방문해 현장 교육 홍보활동에 나선다.

또 다음달부터 지역 농협 등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주소정보 홍보 문구를 표출하고, 시교육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악 및 건물에 없는 비거주지역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국가지번번호'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송진남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모두가 촘촘하고 세밀해진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할 때까지 홍보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소방, 파라과이에 선진 소방기술 전수

교육훈련단 6명 파견 현지 교육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파라과이에 파견된 교육훈련단이 파라과이 자위소방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훈련을 마치고 복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 파견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 교육훈련 사업 지원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차 현지 연수사업자인 파라과이에 교육훈련단 6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교육훈

련단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자위소방대 30명을 대상으로 전문 소방기법 등을 교육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또 2018년부터 펌프차, 구급차 등 37대의 소방차를 파라과이에 지원했으며, 올해도 소방차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광주소방의 선진화된 소방기술 전수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파라과이와 소방안전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자립준비청년 '주거학교' 호응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상담 안정적 홀로서기 준비 큰 도움

광주도시공사가 지역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25일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및 아동양육시설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주거학교를 진행했다.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주거지원 교육 및 주거상담'을 통해 1대1 교육을 진행하고, 임대주택 현황 및 지원 방법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을 추가했다.

지역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한 자립준비청년은 "혼자서 주거지 등을 마련할 생각에 막막했는데, 도시공사의 주거 지원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 준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라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과 아동양육시설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광주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광주시에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지원 속도 등)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광주시는 30일간 자격심사 후 본인계좌로 입금 지원할 계획이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